

## 경남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김 남 진\*

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경남지역 소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경남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 담당자 12명과 전화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들과의 면담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마다 보조공학기기 구비 정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지원 실적 역시 저조하다. 둘째,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규정-기능평가, 대여 기간, 보관 방법 등이 없기 때문에 대여 및 관리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셋째, 담당자들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새로운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조공학기기 지원 규정의 제정,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새로운 대안의 구안, 보조공학 관련 연수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 보조공학기기 지원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인간의 능력은 매우 제한적임에 분명하다. 여기에 더해 인지적,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은 능력은 다시금 이중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의 도움이 제도적으로 필

\* 교신저자(njkimno1@hanmail.net)

요한 경우도 있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정부는 2001년 각 시·도 교육청별로 16곳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범 운영(윤점룡, 2001)하였다. 그리고 「제2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 - ‘07)」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어(교육과학기술부, 2008a) 2005년에 전국 182개의 모든 교육청에 설치를 완료함으로써(권택환, 신재훈, 신재한, 2008)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제가 구축되었으나, 공간 부족, 전담인력 배치 미비 등으로 운영은 활성화되지 않았다(교육과학기술부, 2008b). 이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을 기점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0년 9월 현재 187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교육과학기술부, 2010)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의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이라 함은 법령 제2조(정의)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통학 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을 의미한다.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중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는 장애인 및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재활 및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치료서비스의 필요성과 더불어 보조공학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최미나, 이근민, 송병섭, 2010)을 고려할 때 다른 업무와 비교해서 그 중요성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기기, 서비스, 보상 방법 등을 통해 장애인의 독립성을 증진시켜주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 역시 보조공학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이근민, 전영환, 2007; 정동훈, 2009)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뒷받침해 준다.

장애인들의 생활 전반에 있어 보조공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 관련 전문가들의 보조공학 요구와 인식 역시 점차 확산되면서 보조공학 전달 체계 구축(김영걸, 2006; 김천수, 정대영, 2008; 남윤석, 2008; 안나연, 육주혜, 2011; 안나연, 공진용, 2009; 오도영, 2009; 장수진, 2006), 보조공학 관련 법률 제정(오길승, 2008; 육주혜 외, 2007), 예비 교사 및 전문인력의 보조공학 역량 강화(공진용 외, 2008; 양현규, 박원희, 2011)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뿐만 아니라 이를 특수교육에 적용하여 장애학생의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한 체계 구축(육주혜 외, 2008)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의 상당 부분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를 보다 정형화시켜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교육과학기술부, 2008a, 2008b)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시·도 및 시·군·구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모든 센터의 설치규모나 배치 전문인력의 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역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수행할 수도 있는 만큼 시·도별로 대상자의 수요 조사 등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방식, 전문인력 배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지역사회 중심의 실질적 특수교육 지원이라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점차 그 필요성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관련하여 경남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 담당자와의 전화면접을 통해 현장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은 지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보조공학 전달 체계 수립, 보조공학 관련 규정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경남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구비, 보조공학 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아동의 기능 평가, 기기의 대여, 기기의 관리까지로 범위를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경남지역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어느 정도의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대여 정도는 어떠한가?
- 둘째, 보조공학기기 대여를 위한 아동의 기능 평가, 기기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셋째,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와 관련한 담당자들의 어려움과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2011년 7월 현재 경남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곳으로 구체적으로는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진주, 통영, 거제, 사천, 밀양, 양산 등 시 지역 9곳, 의령, 창녕, 남해, 산청, 거창, 함안, 고성, 하동, 함양, 합천 등 군 지역 11곳이다. 이들 중 창원과 마산 그리고 진해는 2010년 7월 법률 제10052호(2010년 3월 2일 공포)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창원시로 통합되어(경상남도청 홈페이지, www.gsnd.net)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으나 각 교육지원청은 현재까지 그대로 분리·유지되고 있다.

전화면접이 이루어진 곳은 12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전체의 약 60% 수준(창원, 마산, 진해를 동일 교육지원청으로 묶을 경우 66.6%)이다. 이와 같이 연구 대상이 전체 대비 60% 수준에 그친 이유는 창원, 마산, 진해의 경우 통합 이후 실질적으로는 동일 체제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창원지역 한 곳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여러 번의 전화면접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일정을 조정하지 못하여 면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 소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6곳, 군 소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6곳으로 그 비율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 중부 경남, 동부 경남 등 경남의 모든 지역이 고루 대상에 포함된 만큼 표집 결과가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면접에 응한 담당자 12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면접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행정구역	교육지원청명 <sup>주1)</sup>	성별	연령	경력 <sup>주2)</sup>	자 격	고용형태
시 지역	거 제	여	25	2년	특수(초, 중)	정 규
	김 해	여	28	2년	특수(초)	비정규
	밀 양	여	30	5년	특수(초)	비정규
	양 산	여	35	2년	특수(유)	비정규
	진 주	여	49	2년	특수(초)	정 규
	창 원	여	29	4년	특수(초)	비정규

군 지역	남 해	여	25	2년	특수(초)	비정규
	산 청	여	28	5년6월	특수(유)	비정규
	의 령	여	26	1년6월	특수(초)	비정규
	창 념	여	28	3년	특수(초)	비정규
	함 안	여	26	2년	특수(중)	정 규
	함 양	남	31	7년	특수(초)	정 규

주1) 연구 결과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익명성 보장을 위해 ‘시-센터1’, ‘군-센터7’ 등과 같이 행정구역과 임의의 숫자로 표기함

주2)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경력

면접에 응한 12명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담당자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자였으며, 연령은 대부분 20대로 25~49세까지 분포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근무 경력은 평균 3년 정도였으며, 정규직이 4명 나머지 8명은 비정규직의 형태로 고용되어 있었다. 소지하고 있는 자격 중별로는 특수학교 초등 교사자격증이 가장 많은 9명(복수 소지자 1명 포함)이었으며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자격증 2명, 특수학교 중등 교사자격증 2명(복수 소지자 1명 포함)이었다.

## 2. 연구 도구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충 질문을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구조화된 면접형식(박미정, 정재권, 박경란, 2011)을 취하였다. 반구조화된 면접은 기본적으로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몇몇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미리 문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김남진, 김용욱, 2009), 면접에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다.

첫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토대로 질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에는 ①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건수, ② 실질적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건수, ③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된 경비, ④ 상시 비치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 ⑤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어려움, ⑥ 보조공학기기의 평균 대여기간, ⑦ 반납되는 보조공학기기의 상태, ⑧ 보조공학기기 반납 후 재대 전까지의 A/S 실태, ⑨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해 가는 학생들에 대한 기능평가 방법, ⑩ 신청 대상자의 장애 영역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2권 3호)

둘째, 질문지 초안을 토대로 거제교육지원청과 양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를 통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 파악이 불가능한 내용 그리고 정보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한 내용 등을 구분하여 질문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청 건수, 실질적 지원 건수, 소요 경비, 신청 대상자의 장애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한 후 답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심적 부담이 클 것이란 의견을 받아들여 내용을 삭제하거나 대략적인 정도만을 묻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다.

셋째, 수정·보완된 질문 내용을 다시 거제교육지원청, 양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검토하게 했으며, 면접에 필요한 소요시간(약 20~30분) 등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표 2>와 같은 최종 질문 20문항이 선정되었다.

<표 2> 질문지의 구성 및 내용

구분	내용	문항수	
배경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li> <li>• 연령</li> <li>• 고용형태</li> <li>• 경력</li> <li>• 자격</li> </ul>		
기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비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 품목 수</li> <li>•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건수, 유형</li> <li>• 실질적 지원 건수, 유형</li> <li>•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한 이유</li> </ul>	6	
보조공학기기 지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에 대한 기능평가 여부, 방법</li> </ul>	2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에 대한 정보 수집 정도</li> <li>• 대여시 보조공학기기의 상태 점검 유무</li> <li>•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유무</li> <li>• 보조공학기기 대여기간에 대한 규정</li> <li>• 평균 대여기간</li> <li>• 보조공학기기의 이상 발생시 조치 방법</li> </ul>	6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납시 상태 점검 여부</li> <li>• 이상 발생시 처리 방법 및 관련 규정 유무</li> <li>• 반납 후 재대여까지의 관리 방법</li> </ul>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업무와 관련한 어려움</li> <li>•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li> <li>• 개선 요구사항</li> </ul>	3	

### 3.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는 경남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담당자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전화면접은 복잡한 내용 혹은 지나치게 민감한 사항들은 질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김남진 외, 2009),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즉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담당자들은 주로 순회교육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구자와의 면담 일정을 조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응답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전화면접은 직접면접에 비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경남의 각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반해 전화면접은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담당자들과의 전화면접은 최종 질문 20문항이 확정된 2011년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실시되었는데 전화면접에 앞서 담당자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및 면접 방식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다. 담당자별 면접 소요시간은 평균 21분 정도였으며, 녹취된 면담내용은 면담을 마친 당일 전사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녹취와 전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① 디지털 녹취기(삼성 Voice yepp VY-H700), 전화 녹음용 어댑터, 유선전화기 연결코드, 외부기기 연결코드를 서로 연결하여 연구자와 담당자의 전화면접 내용을 녹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② 담당자에게 연구목적 등에 대한 설명 및 녹취 동의 여부 문의 후 이에 동의하면 녹취기의 record 버튼을 눌러 녹음을 시작하였다.

③ 파일 형태로 녹취기에 저장된 면담내용은 면담이 이루어진 당일 녹취기 제조사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PC로 옮겼다. PC에서 해당 파일을 열어 내용을 청취하면서 동시에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전사하였다. 면담자의 구술 속도와 워드프로세싱의 속도차로 인해 내용을 누락하는 등의 실수를 없애고 전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체적으로 듣기 → 문장 단위로 듣기·전사하기 → 단어 단위로 듣기·전사하기’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전사된 데이터의 양은 font size: 10, 장평: 160%, 여백: 기본을 기준으로 A4용지 51장의 분량이었다.

④ 면담 내용은 연구자에 의해 직접 전사되었으며, 이후 내용 분석을 위해 두 명의 연구보조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내용 분석 전 연구자를 포함한 3명은 모임을 통해 녹음된 자료와 전사된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 4. 자료분석

이 연구는 경남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을 텍스트로 전사하여 이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Gesne와 Peshkin(1992)이 제시한 다양한 방법(김윤옥 외, 2009 재인용)을 이용하였다.

첫째, 전화면접을 실시함에 있어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 면담에 응한 담당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물어 면담에 응하게 하였으며, 담당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둘째, 삼각측정법(triangulated findings) 특히 조사자 삼각측정법(investigator triangulation)을 활용하였다. 실질적으로 모든 전화면접은 연구자 한 명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성을 배제시키기 위해 분석 과정에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두 명을 보조원으로 추가 참여시켰다. 이들 대학원생 두 명에 대해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문제 그리고 연구 방법, 해석 과정에 있어서의 역할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자를 포함한 세 명은 전사된 내용을 복사하여 녹음 내용과 대조하면서 바르게 전사되었는지 그리고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의 확인 과정을 공동으로 거친 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개별적인 분류·분석 과정이 끝난 후에는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모임을 두 차례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을 코딩하고 이를 분류, 분석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질문지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 중 ○ 혹은 X로 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각 문항이 포함된 표를 작성하여 답변을 코딩하도록 하였다. 이후 작성된 표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면담사례를 선택하였다.

② 보조공학기기 품목 수, 신청 건수, 대여 기간과 같이 간략한 답변이 가능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위의 ①과정에 사용되었던 표를 이용하였다. 코딩된 자료를 통해 우선적으로 시 지역과 군 지역을 비교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각 특수교육지원센터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③ 여타 구체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는 질문들에 대한 반응은 각 특수교육지원센터별로 중심내용을 간략히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후 모든 답변을 종합하여 범주별로 묶어 주제어를 선정했다. 이와 같은 코딩 자료는 ①과 ②에서 분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경남지역의 일부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둘째, 전화면접을 함에 있어 담당자들의 면접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몇몇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도 측면이 문제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와의 구체적인 비교 역시 제한적이다.

### Ⅲ. 연구 결과

#### 1. 보조공학기기 구비 및 대여 정도

##### 1) 지역 간 격차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구비 정도는 5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품목을 구비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두세 가지 품목만을 구비하고 있는 곳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반드시 도시의 규모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경남지역에서도 작은 편에 해당하는 군 지역 소재 특수교육지원센터지만 많은 보조공학기기를 갖추고 있는 곳도 있는 반면 시 지역으로써 대도시로 분류할 수 있는 지역에 소재한 특수교육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공학기기 구비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있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구비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 품목을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휠체어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으며 주로 감각장애 및 의사소통장애 아동을 위한 보조공학기기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었다.

“독서확대기, 언어습득기, 증폭마이크, 타이핑보조기, 센스리더, 헤드포인터, 휠체어, 워커 등 15가지 품목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품목당 개수는 한 두 개씩이고요.” (시-센터7)

“대략 50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치료기구를 비롯해서 휠체어, 문자확대기, 보조발판 등등해서요.” (군-센터4)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한소녀와 문자확대기 이렇게 두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은 없고 지체장애를 위한 휠체어 정도가 저희 센터에서 구비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의 전부입니다.” (군-센터3)

"월체어랑, 독서확대기 정도와 같은 2종이 전부입니다. 센터를 크게 확장해서 옮긴지가 얼마 되지 않아 물품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시-센터12)

## 2) 저조한 대여 실적

2010년도 기준 보조공학기기 대여 실적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보조공학기기 구비 정도와 대여 실적 간에 반드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군 지역 소재의 특수교육지원센터(군-센터2)가 구비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의 품목은 15~20개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했으나 대여 신청이 이루어졌던 것은 FM보청기 1건이 전부일 정도였다.

"품목 수는 15~20개 정도...<중략>...작년에 신청받은 것은 FM보청기 1건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월체어를 대여해 달라는 분이 두 세분 정도 계셨고요, 기기들은 대여되는 것 보다는 주로 순회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순회담당 선생님들이 순회교육때 사용하는..." (군-센터2)

"현재 월체어, 워커, 지팡이 등 5종에 대해 각 한 개씩을 보유...<중략>...작년서부터 이 곳에서 근무했는데 작년도 지원자가 없고 올해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군-센터11)

보조공학기기 대여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담당자들은 개인 구매의 증가, 훼손시 배상에 대한 부담, 관내 보조공학기기 수요층의 부족, 장기간 사용하는 경향 등을 언급하였다.

### (1) 장기 대여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하는 경우 대부분은 사용자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대여한 보조공학기기의 사용 기한 역시 보통은 한 학기 혹은 1년과 같이 장기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여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청하면 거의 80%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청 건수가 작아요, 채 10건도 안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빌려 가면 한 학기 혹은 1년 동안 장기대여를 하고요," (시-센터7)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한 학생이 없기 때문에 순회 교육때도 사용하고, 빌려간 학생이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군-센터3)

(2) 개인 구매 증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대상자에게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80%를 지원하고 있는 정책 등으로 인해 보조공학기기를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한 대여는 줄어드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하는데 있어 학부모가 20%만 부담하면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본인의 것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신청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에게 의지를 하더라고요,” (시-센터10)

“센터에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여하는 분들도 별로 없고 다른 지역 센터 분들에게 물어봐도 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기기를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욕심을 내셔서 이용하고 싶다는 것 외에는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 갖고 계시더라고요, 학급에서도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빌려주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센터4)

(3) 관내 사용자 부재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내에 보조공학기기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원 실적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작년 기준 신청 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군 소재 센터3의 경우는 한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특정 보조공학기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학생이 올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기 때문에 관내에는 보조공학기기를 필요로 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군 소재의 한 특수교육지원센터(군-센터6) 담당자는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신청자가 많이 없었다고 전했는데, 그 이유는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해야 할 만큼 장애가 심한 경우는 특수학교가 있는 인근 지역으로 전학을 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4) 훼손시 배상에 대한 부담

몇몇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보조공학기기가 훼손될 경우 기기의 훼손과 관련된 배상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여를 하지 않는다고 추측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건도 없는데요, 신청을 해서 대여해준 것을 묻는 것 맞죠? 저희 없는데요, 진단평가 도구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많이 오는데 보조공학기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 순회 선생님들이 그나마 사용하고 있을 뿐 대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다, 제가 작년에 센스뷰어를 구입했는데, 규정에 훼손시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대여해 가지 않는 것은 아닌가란 생각도 해봅니다." (시-센터1)

"기기를 대여했어도 고가의 기기를 대여했을 때 학교에서 파손이나 고장의 우려가 있어서 학교 측에서 다시 우리에게 반납하겠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군-센터6)

다양한 이유에 의한 보조공학기기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결국 다음과 같이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채투자를 감소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지역엔 감각장애아동이 10명 정도 있어서 시각, 청각장애 관련 보조공학기기가 많이 필요한데 ...<중략>... FM보청기는 저희가 애들에게 지원해 주고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신청을 받겠다고 1년 내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어서 500만원 넘는 게 그냥 있거든요, 한참 고민을 해서 산 것인데 대여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예산을 보조공학기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시-센터8)

## 2. 보조공학기기 평가 및 관리

### 1) 평가없이 이루어지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사용자에게 대한 기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으며, 기능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대다수의 담당자들은 순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인 만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대여하기 위해 방문하는 장애아동의 부모나 담당교사가 의례 잘 알고 왔을 것이란 짐작으로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해 주고 있었다.

#### (1)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관내 아동

순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들은 최소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관내 장애아동들을 접하고 있는 만큼 아동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대부분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기능평가 없이 기기를 대여해주고 있었다.

"아이가 다니는 병원이나 치료실 선생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고 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휠체어 같은 경우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은 것이니 그냥 빌려주고요, 특히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넓은 것도 아니고 장애아동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모두 알거든요, 그래서 기

능평가 같은 것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군-센터2)

"기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여하러 오신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빌려 드리죠, 관내 학생들의 경우는 저희가 모두 알고, 더구나 학교 선생님도 학생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능평가를 권유해 본적도 없는데요." (군-센터5)

(2) 가족과 교사에 대한 믿음

순회교육을 통해 파악한 아동의 특성을 토대로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해 준다는 의견과 함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견이 아동을 잘 알고 있는 부모와 교사에 의해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센터에서 기능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담임 선생님들이 판단하셔서 학교 측에서 공문을 보내 후 빌려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평가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고 빌려달라는 것을 그냥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요, 시각장애의 경우는 장애 급수를 보고 판단 후 빌려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센터7)

"학교 선생님들이 각자 하시고, 저희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병원을 연계해 드려요, 연계라는 것이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2~3년 동안 한 건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시각, 청각에 문제가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검사를 다 해 오셨기 때문에 또 의뢰를 안하시더라고요." (시-센터8)

"따로 평가하는 것 보다는 우선 학생의 장애 유형이나 필요로 하는 것을 가족분이나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따로 기능평가를 실시해서 대여해야 할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기능평가를 해야 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 유도한 적이 있으나 그런 기기들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군-센터4)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공학기기 사용자에게 대한 기능평가 자체를 모르는 담당자도 있었다.

"교사들을 통해 학생들이 어떠한 용도로 필요한지에 대해 신청서를 받거든요, 따라서 기능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지도 않고 문의하지도 않습니다...<중략>...기능평가를 실시하게 한 적도 없으며 그것 자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센터12)

(3) 새로운 대안: 운영위원회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해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운영위원회를 거쳐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는 군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있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가 보조공학기기 사용자의 기능평가를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다만 고가의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함에 있어 필요한 형식상 절차로 인식되고 있거나 신청자가 중복될 경우 보다 적합한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대여 신청이 있으면 별다른 기능평가는 하지 않지만, 그 학생이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지에 대해 간단하게 운영위원회를 엽니다. 그리고 센터의 선생님 두 분 정도가 직접 나가서 학생이 기기를 수업시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후에는 기기가 점점 고가가 될 것이고 신청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적합한 학생에게 대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군-센터6)

## 2) 규정없이 이루어지는 업무

앞서 살펴본 보조공학기기 사용자에 대한 기능평가 규정은 물론 대여기간, 이상 발생시 배상 방법, 관리 방법 등에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간 운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 (1) 대여 기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대여하는 물품에는 보조공학기기 이외에 진단검사를 위한 검사도구도 포함되어 있다. 진단검사 도구의 경우는 대부분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대여기간을 2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조공학기기에 대해서는 기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또한 대여기간이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보조공학기기의 특성상 한 학기 혹은 1년, 길게는 사용자가 필요없다고 할 때까지 장기 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규정요? 규정은 없습니다. 센터의 반납신청서 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을 규정이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반납신청서 안에 그냥 ‘기기반납절차안내’ 로요 ‘지원 보조공학기기는 사용가능한 상태로 ○○교육지원청에 반납해야 하며 운송비는 학교에서 부담합니다. 대여한 물품이 훼손되었을 경우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총액의 70%를 부담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작년에 고가의 기기를 구매하면서 필요하게 되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센터1)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재연장을 통해 한 학생이 계속 장기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춤형이라서 다른 학생에게 맞지 않잖습니까? 말은 대여인데 개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이지요, 말은 대여지만...” (시-센터10)

(2) 기기의 이상 발생시 대처

어느 군 지역 소재 특수교육지원센터(군-센터3) 담당자의 이야기처럼 보조공학 기기도 기계인 만큼 사용을 하다보면 당연히 고장이 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장 혹은 훼손의 정도와 관련하여 그것을 복구하는데 있어서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① 특수교육지원센터 부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대어하는 과정에서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제시하고도 실질적으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쳐야죠, 저희가, 빌려간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저희가 고쳐요, 구두상으로는 조심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 대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은 저희 쪽에서 거의 다..." (시-센터8)

"학교에서 빌려간 후 이상이 있으면 학교 측에서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FM보청기의 경우 고장난 적이 있었는데 무상 A/S기간이라서 업체에서 수리한 적이 있고요 그 외는 크게 고장난 적이 없어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여건을 보면서 센터에서 할 수도 있는데 여건상 센터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군-센터5)

② 사용자 책임

최근 정부의 다양한 재정 지원에 힘입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고가의 보조공학 기기를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반납신청서 상에 고장 및 훼손에 대해 일정 부분 사용자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고지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있었다.

"훼손시 배상에 대해 대어자의 책임임을 확인시킨 후 서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그냥 막 대어해 줬었는데 물건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지 얼마되진 않아요," (시-센터10)

"대장에 간단하게 (대어자의 정보를)기록만 하다가 올해부터 본인이 70%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군-센터6)

"학교에서 빌려간 후 고장이 나면 학교에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학교에 업체 번호를 알려주고, 학교가 업체에 전화해서 직접 수리를 받아서 오고 있습니다," (시-센터12)

③ 새로운 대안: 보험

고장 및 훼손된 보조공학기기를 수리하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 그리고 이로 인한 사용상의 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특수교육 지원센터도 있었다.

"지금까지 경우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려고요, 보조공학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여가 너무 안되니까 비싼 기기를 그냥 두기도 아깝잖아요, 도의 장학사님께도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장학사님도 고민이 되셨고 이를 다시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와 상의하시던 과정에 알게 된 것이 보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센터1)

3) 허술한 관리

사용자로부터 반납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는 대부분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육안에 의한 확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후 재대여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시 지역 소재 센터7의 경우는 반납이 이루어진 후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재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하이테크놀로지의 경우도 정밀검사를 위해 업체에 A/S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냥 교구로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요, 그런데 작년엔 과장님의 지시에 의해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시-센터1)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재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밀한 점검을 위해 업체에 A/S를 의뢰해본 적은 없어요," (시-센터7)

3. 담당자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

전화면접을 통해 나타난 담당자들이 경험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업무에서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업무에서의 혼란은 모두 성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었다. 이에 담당자들은 교육과학기술부 혹은 도 단위 교육청에서 보조공학 관련 업무에 관한 개괄적 규정을 만들고 각 지역교육청이 이를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다보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그것을 강력히 했으면 좋겠어요." (시-센터1)

"현재는 고가의 기기가 없어서 빌려가는 사례도 없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구입하고 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좀 곤란해 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군-센터2)

둘째, 보조공학기기를 충분히 구비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이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다.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월체어가 가장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부족한 경우는 아니지만 수량을 더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구-센터5)

"사실 '특수교육지원센터 컨설팅' 이라고 해서 다음 주에도 있을 예정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보조공학기기 구비 자체가 안되어 있으니 대여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구비하라는 것입니다." (시-센터1)

셋째, 지금과 같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이 아닌 새로운 대안의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의 효과성을 위해 담당자들이 제안한 대안이란 다음과 같다.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새로운 기관의 필요성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하고, 보조공학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에 대해 담당자들 역시 일정 부분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별도의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경우는 없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예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빌려가는 입장에서도 고가의 첨단 기기들도 쉽게 빌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군-센터2)

"저희 지역에 보건소, 시청, 교육청, 학교, 병원, 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지역재활협의체'가 있는데, 보조공학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도 대여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센터 선생님들이 사실적으로 기능평가를 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예산은 지속적인

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 기관만이라도 대여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차를 구비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보건소에 저희 센터에 월체어도 있고, 워커도 있으니까 혹시 수요자가 많아지거든 저희 센터를 소개해 달라고 했음에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시-센터1)

## ② 개인 구매 확대

보조공학기기 구매를 위한 정부 정책, 보조공학기기의 특성, 보조공학기기의 대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보조공학기기를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현재의 체제보다 효율적인 만큼 정부의 지원액을 증가시켜 개인 구매를 확대시키자는 것이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 영역별로 다양한 품목을 구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장애학생 부모님들에 대한 지원액을 늘려서 센터에서 대여하게 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개인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시-센터7)

“저희들은 대여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특성상 대여가 아니잖아요. 몸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1학기는 누가, 2학기는 누가하는 식은 안되는 물건이잖아요. 대여해주는 것 말고 학부모님들의 자부담을 줄여서 개인 소유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센터10)

## IV. 결 론

이 연구는 경남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 담당자들과의 전화면접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별로 연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남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구비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 품목의 종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이와 같은 보조공학기기 구비 정도는 도시의 규모와는 상관이 없으며 또한 품목의 구비 정도와 대여 정도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보조공학기기의 대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담당자들의 의견은 장기간의 대여, 개인 구매의 증가, 관내 사용자의 부재 그리고 훼손시 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 등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보조공학기기의 대여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를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함에 있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접근성, 정보의 부재(오도영, 2008), 보조공학 임상 중재에 따른 성과 제시 연구의 부족(전영환, 2009; 정동훈, 2009) 때문이라고 제시했던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차이는 각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계획 혹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을 통해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장애인 혹은 특수교육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음에 반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운영 목적을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지원(경상남도교육청, 2011; 제주시교육지원청, 2011)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보조공학기기가 대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우선적으로 기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한 군데도 없다. 기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담당자가 순회교육 업무를 통해 관내의 아동들을 알고 있다거나 부모 혹은 교사들이 아동들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관련하여 대여 기간, 기기의 이상 발생시 처리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마다 다른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업무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반납 후 재대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관리 역시 철저하지 못하며 고가의 하이테크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정밀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관하는 곳 역시 없는 실정이다. 보조공학기기의 대여 및 반납에 대한 규정은 각 지역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를 간략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시교육지원청(2011)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에 의하면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의 대여 기간은 유·초·중학교에서 공문으로 물품 대여 및 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후 절차에 따라 승인될 경우 물품 공차증을 작성하고 대여한 경우는 1개월 이상,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재교구 대여 기록부 작성 후 담당자의 승낙에 의하여 대여한 경우는 1개월 미만 대여 가능하다. 그리고 1교구는 3개월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 가능 시간 중 방문 및 전화를 통해 반납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반해 경상남도교육청(2011)의 2011년 경남특수교육계획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셋째,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역 수준 혹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 전반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요구사항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와 관련한 상급 기관에서의 규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대안이 요구된다는 것 등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요구된다.

첫째, 선행연구들을 통해 주장되어 온 보조공학 관련 법률은 차치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경남지역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 규정의 제정이 요구된다.

둘째, 보조공학기기의 구비 정도 및 지원 정도를 통해 볼 때, 몇몇 담당자들이 제시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구 혹은 기관의 필요성은 정당성을 갖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조공학기기 지원 담당자들이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조공학 관련 연수를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경상남도교육청 (2011). 2011 경남특수교육. 경남: 경상남도 교육청.
- 공진용, 안나연, 오현정, 정승민, 조재덕 (2008). 장애인복지관의 보조공학서비스 프로그램 실태 조사. **보조공학저널**, 2(1), 53-68.
- 교육과학기술부 (2008a).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설명회. 설명회 자료집.
- 교육과학기술부 (2008b).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08 - '12).
- 교육과학기술부 (2010).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권택환, 신재훈, 신재한 (2008).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 방해 요인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0(3), 195-214.
- 김남진, 김용욱 (2009). **(특수)교육연구방법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영걸 (2006). 특수학교 보조공학 전달체계 모형 개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윤옥, 박성미, 박소영, 손 미, 신경숙, 이은화, 정명화, 허승희, 황희숙 (2009). **질적연구 실행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김천수, 정대영 (2008). 학습장애 학생의 교수-학습을 위한 보조공학 지원 모형 개발. **특수아동교육연구**, 10(1), 75-110.
- 남윤석 (2008). 보조공학 적용의 활성화를 위한 국외의 사정 도구 탐색. **보조공학저널**, 2(1), 1-12.
- 박미정, 정재권, 박경란 (2011). 농중증·중복장애아동과 가족 지원을 위한 요구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2), 91-113.
- 안나연, 육주혜 (2011).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서비스 과정과 요소 개발 기초연구. **중복·지체부자유연구**, 54(2), 45-73.
- 안나연, 공진용 (2009). 한국어 번역판 보조공학 평가도구 QUEST 2.0의 검증연구. **장애와 고용**, 19(2), 99-116.
- 양현규, 박원희 (2011). 지체장애 학생을 위해 특수교사에게 요구되는 보조공학 능력의 분석적 고찰. **중복·지체부자유연구**, 54(1), 109-125.

- 오길승 (2008). 보조테크놀로지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7(1), 47-66.
- 오도영 (2009). 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 미국, 일본,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8(1), 161-189.
- 오도영 (2008). 텔파이 기법을 활용한 보조공학 서비스 발전을 위한 과제 분석. **중복·지체부자유연구**, 51(1), 147-164.
- 육주혜, 송영준, 김영태, 이병인, 정승민 (2008). 우리나라 특수교육에서의 보조공학 요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3(1), 265-283.
- 육주혜, 김영규, 공진용, 손병창, 고등영 (2007). **우리나라 보조공학 서비스 발전을 위한 보조공학 법률 제정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윤점룡 (2001).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의 목적과 기본 방향. **현장특수교육**, 8(6), 18-21.
- 이근민, 전영환 (2007). 장애인 고용에서의 보조공학 효과분석. **재활복지**, 11(3), 27-55.
- 장수진 (2006). 지체부자유학생의 보조공학 도구 선정을 위한 WATI 보조공학 사정도구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전영환 (2009). 보조공학기기의 미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활복지**, 13(3), 177-198.
- 정동훈 (2009). 국내 보조공학 연구동향 분석: 1998~2008년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학술지 중심으로. **중복·지체부자유연구**, 52(1), 97-124.
- 제주시교육지원청 (201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제주: 제주시교육지원청.
- 최미나, 이근미, 송병성 (2010). 대구지역 장애인의 보조공학 서비스에 대한 수요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2), 401-427.
-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www.gsnd.net](http://www.gsnd.net)

A Study on the Condition and Problem Analysis for  
Assistive Technology Device Support of Special Education  
Assistance Center in Gyeong-Nam

**Kim, Nam Jin**

Dept.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Graduate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upport actual condition and problem of Gyeong-Nam area. We executed the telephone interview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with 12 person in charges of special education assistance center in Gyeong-Nam. We shifted these courtesy call contents and analyzed tha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show proper difference an each area every special education assistance center in a supplementary assistive technology device and support performance is inactive. Second,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subjects to need necessarily about assistive technology device support. So, consequently the versus and have the problem many the officer in. Third, person in charges request new the enactment assistive technology device and alternative of a support relation regul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a regulation enactment necessity, reinforcement of teacher training.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assistance center, assistive technology, assistive technology device support

---

논문 접수: 2011. 07. 22 심사 시작: 2011. 08. 10 게재 확정: 2011. 09. 26